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사진은 지난 축제 당시 왕인박사 퍼레이드 모습.

/영암군 제공

1,600년 전 시간여행...4년 만에 30일 ‘팡파르’

지역축제 현장을 가다 영암왕인문화축제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왕인박사유적지에서 펼쳐진다. 영암군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째, 왕인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4월 2일 오후 2시에 펼쳐지는 테마 퍼레이드는 왕인박사가 1,600년 전 일본으로 건너가 백제의 문화를 전파했던 기존 콘셉트에서 변화해 왕인이 현대로 귀환해 영암의 찬란한 미래를 선언하는 귀환 퍼레이드로 연출함으로써 신선함을 더 하고 퍼레이드 실황을 드론 영상으로 송출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모든 관람객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결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정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천자문·경전 성독대회’ 등 왕인에 특화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해 축제의 전통성을 잇고, ‘모두의 놀이터! 왕인 천자문 월드’, ‘북카페 왕인의 숲’, ‘왕인 어린이 독서 골든벨’ 등 모든 연령이 어우러져 천자문·문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두 번째로는 영암군 11개 읍면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영암 향토음식관부터 귀농귀촌인 음

식판매관, 북한음식 판매관, 영암축협 농가모임 음식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하고, 영암푸드랜드와 쇼펍랜드를 영월관 광장으로 옮기는 등 판매장을 집중화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왕인박사 유적지뿐만 아니라 구림마을 일원으로 축제장 권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야간 프로그램 준비를 통해 보다 다양한 축제의 재미를 제공한다.

축제장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는 ‘영암여행도 퍼 인증샷 챌린지’와 ‘구림마을 모바일 스탬프 투어’, 미션을 완수하면 랜덤으로 상품이 제공되고

상대포·도갑사·기찬랜드·구림마을 등 영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기찬영암 관광투어’와 함께 ‘구림마을 달빛야행’, ‘월출산 별해는 밤’, 왕인의 소통·상생의 정신을 빛으로 구현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이색 포토존을 조성한 ‘빛으로 물든 영암’ 등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영암군은 2019년 개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면 축제인 만큼 지역의 70여 기관사회단체 및 관계 공무원들이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객 모두에게 ‘오감만족’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 프로그램 중 ‘플로깅 역사투어 왕인 산보’, ‘기찬영암 관광투어’, ‘구림마을 달빛야행’ 프로그램의 사전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기타 자세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왕인문화축제 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kr)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축제장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즉석 인쇄할 수 있는 ‘봄꽃사진관’ 코너도 마련돼 있다. 동행한 이들과 봄날의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다.

올해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오는 30일 개막행사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을 시작으로, 31일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영암 유치기원 음악회와 4월 1일 달빛 디제이 파티 ‘신 난파진가’ 등을 거쳐 마지막 날인 4월 2일 ‘구림의 밤’ 폐막행사와 함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우성진·영암·최복섭 기자



“영암의 밝은 미래 볼 수 있는 기회”

인터뷰 | 우성희 영암군수

“코로나19로 중단돼 4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대면 축제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K-컬처의 시작, 왕인의 빛’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기획,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성희 영암군수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3영암왕인문화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 밝혔다.

우 군수는 “대표 행사인 테마퍼레이드는 1,600년전 도입해 문화를 전파했던 왕인이 현대로 귀환해 영암의 미래를 선언하는 연출로 구현해 봤다”며 “왕인박사가 일본에 전파한 문자, 활자, 책을 활용한 콘텐츠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정체성이 뚜렷하고 내실있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예술인과 청소년 문화공연을 추진해 지역민 주도형 축제문화를 정착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면서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향유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왕인문화축제장 뿐만 아니라 영암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관광지가 많다”면서 “전통가옥, 누정, 돌담 등이 옛 그대로 보존돼 있는 구림마을과 우리나라 최초의 유약도기를 생산한 곳으로 평가된 구림도기가마터를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있는 도기박물관, 월출산 용추굴에 있는 계곡형 천연 자연휴식기찬랜드, 월출산 기슭을 따라 조성된 기찬빛길 또한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한국 대중음악의 대표주자인 트로트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와 조현현 바둑기념관, 국민여가캠핑장 등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다양한 관광지가 풍부한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암관광의 미래를 위해 영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월출산의 생태관광을 위한 다양한 체류시설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고대 마한의 역사적 현장이자 심장부였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왕인행차.

/영암군 제공



왕인밥상(위)과 기찬랜드 전경.

/영암군 제공